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변함없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KOPEC이 오래오래 지키고 싶습니다

여름이나 가을겨울이 오면 또 이듬해봄이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건 자연뿐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나타난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후와 자연생태계도 이제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해 질수록 높아지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우리의 자연생태계도 깨끗하게 지키는 원자력 에너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40%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변함없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오래오래 지키기 위하여 KOPEC이 세계 최고의 원자력발전소를 설계·건설하고 있습니다.

Anytime, Anywhere... KOPEC is all around you



고리원자력발전소

울진원자력발전소

영광원자력발전소

 **KOPEC**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www.kopec.co.kr

통권 303호 2007

KOPEC family

한 국 전 력 기 술

04



April

새 꽃화분 하나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는길

여린 꽃망을 위로 머문 햇살이 눈부시다.

Contents

2007 KOPEC FAMILY

- 4 K-Message | 공존(共存), 공감(共感) 그리고 부합(符合)의 결실
- 6 KOPEC NEWS | 제1차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외
- 10 테마기획 - 세계속으로 | 영화 '글루미 선데이'의 무대, 부다페스트
- 14 생활과 과학 | 옷, 그 이상의 옷!
- 16 웰빙 KOPEC | 말의 태도를 정하는 단어와 말투
- 18 카메라 취재 | 묵안리 주민과 함께 떠난 발전소 나들이
- 20 KOPEC 마인드 | KOPEC인으로서는 첫 권문을 통과하다
- 22 도전 IT전문가 | 구글(Google)로 업무를
- 24 Teamwork | 플랜트사업개발처
- 28 Benchmarking & Globalization | 인도네시아의 마라톤 회의
- 30 우리가족 만세 | 배관기술처 김성남 과장 가족
- 32 자상전시회 | Maggie & Jerry
- 34 경제를 보는 눈 | 탄력성으로 세상보기
- 36 건강 100세 | 가렵다고 긁지 마세요
- 38 문화의 산책 | 바퀴바퀴, 모든 걸 다 바퀴, 매니페스토
- 40 Radar | 정부, 전력산업 해외진출 본격화 외
- 42 InsideOutside | 서울동정 외
- 44 Information | 영화 '극락도 살인사건' 외
- 45 책 읽어주는 남자 | 향수
- 46 퀴즈한마당 | 틀린 그림 찾기 외
- 47 밑줄긋기 | 갈릴레오의 망원경



Cover Story | 촬영 : 홍보실 김종학 사진기자

사업관리기술처 정원일 부장은 한기 경영혁신 경진대회에서 6명의 팀원과 함께 '지식공유시스템 보강방안 수립' 과제로 영예의 대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공존(共存), 공감(共感) 그리고 부합(符合)의 결실



잔인한 4월, 이는 아마도 자연의 이치로 모든 동식물이 생태적으로 어려운 겨울 환경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지난 봄보다 더 화려한 부활을 하거나 심지어 생명의 줄을 이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우리는 4월에 알게 되기 때문 일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이처럼 만물이 소생하는 좋은 계절인 봄의 중심에 있는 4월이 잔인한 달로 표현될 수 있는 것도 그 근본은 해마다 다르게 찾아 오는 겨울이라는 어려운 환경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지난 봄보다 더 화려한 부활을 이룬 개체는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발휘하여 어려운 겨울을 잘 극복한 것이다. 이러한 자연의 환경 적응력은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생체적 유기체인 자연이 본능적으로 자연환경 변화를 극복한다면 사회적 유기체인 우리회사는 사회환경 변화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를 또 한번의 4월을 맞는 이 시점에서 화려한 변신을 꿈꾸며 생각해 보자.

우리회사는 지금 어떠한 환경 속에 있고 그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

며 이에 따른 극복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물론 이 내용은 회사가 2005년 12월에 발간한 '중장기 경영계획(2006~2015)' 과 2006년 10월에 발간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KOPEC의 경영전략' 에 체계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기업 외부환경 측면을 요약하여 보면, 세계 원전시장의 부활과 개도국의 전력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발전소 신규건설 물량이 감소하고, 원전 기술 및 가격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그 동안 국내전력 공급위주의 국가 정책에 따라 계획된 신규 발전소 건설에 대한 종합 A/E 사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환경과 많은 변화가 일어난 상태이다. 즉, 우리회사가 시장을 형성 또는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개척해야 하거나 사업영역의 다각화가 필요한 환경에 이미 들어와 있으며 그 환경변화의 속도도 점점 빨라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면 어느 기업에게나 항상 닥치는 당연한 환경변화이자 새롭게 적응해서 매듭지어야 할 열매를 위한 시련의 씨앗일 뿐이다.

회사는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극복하고자 장기 비전과 추진 전략을 재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가치를 우선하는 세계최고의 기술회사' 라는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발전방향을 크게 핵심역량 강화, 고객가치 우선, 연관분야 사업확대로 정립하였다. 여기서 기업환

경 변화에 따라 특기할 사항이 사업영역 측면의 연관분야 사업확대로 생각할 수 있다. 연관분야 사업확대를 위해서는 추진전략으로 사업다각화가 필수적이며, 회사가 추진 중인 다각화 사업 부문으로는 발전소 O&M, 환경, 신·재생에너지, PM/CM, 건설 등이 있다. 사업다각화란 기존 사업영역에 없었거나 있었다 할지라도 핵심역량에 기반을 둔 주력업무가 아니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런 전제를 감안하면 사업다각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 회사업무가 그만큼 다양화된다. 둘째, 기존의 업무와 다른 점이 많아 새로운 일을 접하게 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기존 업무에 비해 경험이 적고 기술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 초기에는 생산성이 낮다. 넷째, 연관분야 사업확대의 기초를 잃고 기존 주력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 등이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택한 사업다각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 업무가 다양해지고 새롭게 할 일이 많아지면 서로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관심에서 멀어져 나오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화의 존속과 새로운 영역의 진출은 역할의 필요성과 기여도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공존의 지혜가 없으면 이루기 힘들 수밖에 없다. 즉,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남이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여 같이 이루어 가는 미덕이 필요하다.

회사생활을 해 오면서 여러 번 들은 이야기 중에 당나귀 이론이 있다. 두마리의 당나귀가 각자에게 부여된 짐을 지고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 중 한 마리 당나귀가 꺾을 내어 자기가 기존에 부담해왔던 무게를 제외한 나머지를 옆 당나귀에 전가하고 자기는 예전의 무게만 부담하여 가고자 하는데 가는 도중 추가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옆 당나귀가 쓰러지게 되어 결국 모든 짐을 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감당해야 할 전체의 양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으로 개인이 아닌 모든 집단의 행동양식에 적용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겐 그저 재미로 회자되는 우화일 뿐이라 생각하고 싶다.

특히, 새로운 일이 많아지는 환경변화는 또 다른 시련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말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다.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예쁘거나,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익히 알고 있어서 마음이 편한 상태를 말한다. 즉, 익히 알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므로 익히 알고 있지 않은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변화하기를 싫어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이 거부감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단순히 편안함의 아름다움에 만족하지 않는 기술적 프로임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일을 추구하여 업무영역의 확대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이렇듯 사업다각화를 중심으로 이런 저런 생각을 하였지만 종합적인 측면에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내외 환경분석을 완료하고 사실상 그 해결책도 다 마련한 상태이며, 2007년 1월에는 앞에서 언급한 중장기 경영계획과 경영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한 2007년도 내부조직평가 편람을 완성함으로써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표 또한 수립한 상태이다.

이제 우리는 주어진 목표를 얼마나 매끄럽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우리회사는 종합설계능력을 겸비한 경험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관련기술의 개발·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므로, 남은 것은 각자 맡은 바 업무를 회사 전체 목표에 부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연관성이 많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화된 조직이 있음을 이해하고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듯이 남이 하는 일도 중요함을 인식하는 공감대와 서로를 위한 공존의 시너지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회사 전체의 목표에 부합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만물의 생기가 도는 자연의 4월에 우리는 더 화려한 우리의 4월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금이 또 다른 겨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자극할 때 우리의 4월은 지속되리라 확신한다.

The Whole is greater than the sum of its parts! 같이 하는 만큼 시련은 작아지고, 기쁨은 배가 될 것이다.

최철승 / 사업관리기술처장



제1차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제1차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2007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지난 3월 2일 본사 5층 이사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사선임(안)이 상정되어 최태현, 사상덕, 정찬기 이사가 새로 선임되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제32기 결산(안) 등 5건이 상정되어 4건은 원안가결되고 제4호 출자자산 담보제공 변경(안)은 수정가결되었다.

300 MW급 석탄가스화 복합발전플랜트 종합설계 기술용역 수주

지난 3월 20일 한국서부발전(주)에서 발주한 '300 MW급 석탄가스화 복합발전플랜트 종합설계 기술용역(1단계)'에서 (주)대우엔지니어링 및 현대엔지니어링(주)와 치열한 적격심사 및 가격경쟁을 거쳐 최종낙찰업체로 선정되었다. 이 용역은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전력연구원, 발전그룹사, 두산중공업 및 국내 연구기관 등이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인 '한국형 IGCC 300 MW급 살증플랜트 설계 기술 자립 및 건설' 사업의 하나로 한국



대영씨엔이(주)와 탈질사업 MOU 체결

서부발전(주)이 제2세부과제인 300 MW급 IGCC 실증플랜트 건설사업을 주관하며, 우리회사는 이 건설사업에 대한 플랜트 종합설계 역무를 담당하게 된다.

대영씨엔이(주)와 탈질사업 MOU 체결

지난 3월 13일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대영씨엔이(주)와 배연 저온탈질설비(KoNOx[®])사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대영씨엔이는 신공법인 압연 파형(Roll Corrugated) 공정으로 배연탈질촉매를 생산하는 특허를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우리회사의 저온탈질촉매 기술과 대영씨엔이가 보유한 신공법의 생산공정을 접목할 경우 기술적, 경제성 측면에서 기존제품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서 우리회사의 국내외 화력발전소 탈질사업 수주에 커다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제품의 연구 개발에도 우리회사의 원천기술과 대영씨엔이의 생산기술을 조합함으로써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원자력공사(AECL) 부사장 방문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의 Mr. Michael Ingram 부사장이 3명이 지난 3월 15일 원자로설계개발단을 방문하여 김동수 단장과 양 기관간의 상호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ECL은 700 MW급 중수로인 CANDU6을 개발하여 캐나다 국내와 해외까지 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안전성을 향상시킨 1000 MW급 중수로인 ACR1000을 개발하고 있는 설계전문회사이다. 김동수 단장과 Mr. Michael Ingram 부사장은 양사간의 업무협력 방안에 관해서 특히 가동중 CANDU 원전의 사업개발과 ACR1000 계통설계 협력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기로 협의하였다.

공항철도 1단계 개통

인천국제공항과 수도 서울을 연결하는 공항철도(AREX) 중 1단계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 구간의 개통식이 지난 3월 23일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서 열려 우리회사에서 임성춘 사장 및 김철수 플랜트사업단장이 참석하였으며, 김응조



공항철도 1단계 개통

부장이 개통 유공자로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우리회사는 국내 철도분야 최초의 민간투자사업(BTO방식, Build-Transfer Operate)인 공항철도 사업에 2002년 11월부터 사업관리기술 지원용역 공동수급체의 주간사로 참여하여 사업시행자인 공항철도(주)와 통합사업관리조직(IPMO: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을 이루어 사업기획/공정/공사비, 품질/안전, 사업정보관리, 시운전등 전 분야의 사업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 공항철도 1단계의 적기 개통에 주된 역할을 하였다.

염광여자정보교육고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지난 4월 5일 자매결연 실업고인 염광여자정보교육고등학교에 장학금 및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이는 2006년 학교와 체결한 자매결연 사업 중에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올바르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국제기능올림픽 정보기술부문에 출전하는 학생을 후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우리회사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임성춘 사장은 "발전소 설계기



염광여자정보교육고등학교에 장학금 전달

술을 자립을 이룩한 KOPEC이 가능인력양성에 도움을 주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 CAD 교육 같은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실업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일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달식 후에 우리회사의 주요시설을 견학한 염광여자정보교육고의 전충용 교장은 "국내 굴지의 기술회사인 KOPEC의 위상을 직접 보니 자매결연 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긴다"라고 화답했다.

태안화력발전소 7호기 상업운전 개시

우리회사가 종합설계한 태안화력 7호기가 전체 예상공기를 4개월 단축하여 지난 2월 28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국내 500MW급 초초임계(USC, Ultra Super Critical) 발전소인 태안화력 7호기는 2001년 12월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2003년 11월 본관 기초굴착 공사를 시작하였다. 태안화력 7호기 사업의 주요 설계 특징은 첫째, 초초임계 발전소로 전체 효율이 2%이상 상승하였다. 둘째, 고효율 탈황설비와 탈질설비 도입으로 자연환경 친화적 발전소를 실



윤경포럼 CEO 서약식 동참

현하였다. 셋째, 국내 최초로 고농도 회 처리방식인 건식 회처리방식을 도입하고 통합제어설비(ICMS, Integrated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를 도입하여 운전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건설 공사비 및 운전유지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점이다.

윤경포럼 CEO 서약식 동참

임성춘 사장은 지난 3월 7일 윤리가 경쟁력을 인식하여 윤리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천명하고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이행하고자 하는 CEO들의 다자간 모임인 윤경포럼(산업정책연구원)의 CEO 서약식에 동참하였다. '신뢰한국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서약식에는 3년 연속 참석한 우리회사 임성춘 사장을 비롯하여 정부기관, 학계, 재계 등 윤경포럼에 가입한 국내 우수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대내외적으로 기업경영상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어 국제규범화 단계에까지 접어들고 있는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 가치를 선언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



신입사원과 경영진의 만남 실시

신입사원과 경영진의 만남 실시

지난해 12월 21일자로 입사한 제31기 신입사원 44명은 지난 3월 2일 인근 음식점에서 경영진과 만남을 가졌다. 입사 후 70여 일간의 회사소개, 직장인 소양, 극기 훈련 등 일련의 신입사원 과정에 이어 소속 부서별로 OJT 교육을 마치는 이날을 기념해 열린 만남은, 회사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한 이해와, 경영진과 회사의 비전과 미래를 직접 이야기 하면서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다양한 지식습득 방법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질문과 조언이 오가는 값진 시간이었다.

고객만족 관련 강연회 개최

플랜트사업단에서는 지난 3월 29일 김주리 주리 컨설팅 대표를 초청하여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Image Making'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이미지 메이킹의 이해, 고객맞이전 이미지 메이킹, 고객응대시 이미지 메이킹으로서 고객과의 접점시 이미지메이킹의 중요성에 다시 한번 인식하는 자리가 되었다.

'질소화합물의 역전전기투석-전기화학적 폐수처리공정' 특허 취득



지난 2월 20일 원자력 발전소 2차 계통의 pH 조절제인 에탄올아민(ETA)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난분해성 COD/T-N을 동시 제거하기 위한 '질소화합물의 역전전기투석-전기화학적 폐수처리공정' (등록번호 : 제 10-0687095호, 발명자 : 환경기술실 주효영, 김대복, 정연욱, 변동화, 김영기, 광주과학기술원 문승현, 연경호)에 대해 국내특허를 취득하였다. 이 특허는 ETA 함유폐수를 역전전기투석(EDR, ElectroDialysis Reversal) 설비를 이용하여 크게 생산수와 농축수로 분리하여 생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농축수는 전기화학적 폐수처리설비(EWT)로 보내 난분해성 COD 및 T-N을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동시 처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특허 기술은 신고리 1,2호기 및 후속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폐수처리설비에 적용 예정이고 가동중인 원전의 폐수처리설비 개선에도 적용 가능하다.

천연망간광석을 포함하는 바나듐/티타니아계 탈질촉매 특허 취득



지난 2월 15일, 천연 망간광석과 바나듐/티타니아계 촉매를 이용하여

저온을 비롯한 넓은 온도 영역에서의 탈질촉매 효율을 더욱 상승시킨 넓은 활성온도 대역에서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한 천연망간광석을 포함하는 바나듐/티타니아계 촉매 및 이의 사용방법(등록번호 : 제 10-0686381호, 발명자 : 전력기술개발연구소 환경에너지연구그룹 홍성호, 이준엽, 홍석주, 조성필)에 대해 국내 특허를 취득하였다. 천연망간광석 촉매는 저온 영역에서 탈질 성능이 우수하며, 바나듐/티타니아계 촉매는 비교적 고온에서 탈질이 가능한데, 이 발명은 두 촉매 분말의 특성을 접목하여 저온 및 고온의 넓은 온도 영역에서 탈질효율이 우수한 촉매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천연망간광석 촉매 및 저온탈질촉매 기술의 개량형으로서 저온탈질촉매 기술의 연장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현재 PCT 출원되어 있다.

주급수 제어계통 개선사항 중국 특허 취득



'원자력발전소의 급수 제어밸브 운전차압을 고려한 급수 제어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에 대한

중국 특허(등록번호 : ZL 2004 10069913.5)를 지난해 11월 취득하였다. 이 급수제어밸브 운전차압 제어장치는 종래 주급수 제어계통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장치로서 급수제어밸브의 운전차압에 따라 주급수 펌프속도에 바이어스를 부여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출력이나 급수펌프의 운전 대수 등에 무관하게 급수제어밸브의 차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급수제어밸브의 차압이 일정할 경우 밸브개도 변화에 대한 유량 변화율이 일정하게 되므로 주급수 제어계통의 안정성이 보다 좋아지고 관련 제어계통의 설정치 선정이 보다 용이해진다. 이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등록번호 : 10-0584836, 발명자 : 원자로설계개발단 손석훈, 송인호, 손중주, 서중태)는 지난해 5월 취득하고 이어 9월에 미국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원자로공동 영구구조밀봉체' 특허 취득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 재장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선한 '원자로공동 영구구조밀봉체

(등록번호 : 제10-0687096호, 발명자 : 원자로설계개발단 원자로계통처 황정기, 김인용, 김범식, 맹철수, 임대현, 장상균, 김민규)에 대한 국내 특허를 지난해 2월 20일 취득하였다. 이제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는 이동식 또는 탈착식 구조밀봉체가 설치되었다. 이 구조밀봉체는 원자로에 핵연료를 교체하기 위하여 원자로 건물의 재장전 구조에 물을 채울 때 원자로 플랜지 아래 쪽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물막이용으로 설치한다. 특허를 획득한 영구구조밀봉체는 특별히 고안한 유연판을 이용하여 구조밀봉체의 밀봉판을 고정 구조물화 함으로써 핵연료 재장전 기간을 단축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 특허는 이미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신고리 3,4호기에 적용하기 위하여 설계가 진행 중이다.

영화 '글루미 선데이'의 무대, 부다페스트

글, 사진 · 이형준 / 사진가



- 01 겔레르트 언덕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나우 강변의 부다페스트.
- 02 헝가리 전통 양식으로 건축한 어부의 요새.
- 03 왕궁언덕에 조성된 어부의 요새와 마차시 교회.
- 04 유명 관광지를 제외한 부다페스트의 나머지 지역들은 무척 한적하다.
- 05 마차를 타고 옛 시가지를 둘러보는 관광객.

01



02

라인 강과 더불어 유럽의 양대 첫 줄인 도나우 강물의 유유히 흐름, 중후하면서도 정감어린 고풍스러운 건축물, 옛 왕가의 흔적이 완연한 왕궁, 그리고 많은 영화와 연극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려진 세체니 다리에 이르기까지, 시선에 잡히는 모든 것이 동유럽의 낭만을 전해주는 도나우의 진주 부다페스트를 찾아가 본다.

유럽의 주요 고도처럼 부다페스트도 명소가 많다. 왕궁, 어부의 요새, 국회의사당, 영웅광장, 국립오페라, 음악사 박물관, 그리고 부다와 페스트 지역을 잇는 다리 등. 지나치는 곳마다 흥미로운 볼거리가 반기는 부다페스트지만 부다페스트의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나지막한 왕궁 언덕부터 찾는다. 왕궁언덕에는 그 이름처럼 왕궁과 어부의 요새가 있다.

1896년 헝가리 제국 1000년을 기념하여 짓기 시작한 어부의 요새는 공사를 한지 6년이 지난 1902년에 완성되었다. 인근의 여러 유적지 가운데 가장 최근에 세워진 어부의 요새는 7개에 달하는 고깔모양의 탑과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회랑을 간직하고 있다. 이 건축물에 어부의 요새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름이 붙은 사연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완성된 지 겨우 105년에 불과한 건축물에 대한 이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의문으로 남아 있는 보기 드문 명소다.



03



04



05

- 06 옛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부다페스트.
- 07 부다와 페스트 지역을 잇는 세체니 다리.
- 08 오르사크하즈 거리 주택 벽에 장식된 조형물.
- 09 부다페스트의 상징인 어부의 요새와 도심 풍경.
- 10 바치 거리의 작은 수돗가에서 물장난을 하는 시민.
- 11 이른 아침 모스크바 광장 앞에서 꽃을 판매하는 행상들.

탑과 회랑에 새겨진 조각을 비롯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지닌 어부의 요새는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나 주변의 풍경도 그 못지않게 흥미롭다. 어부의 요새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볼거리는 시간대에 따라 등장하는 거리의 악사와 화가 같은 재주꾼들이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거리의 화가와 악사들이 준비해온 악보를 펼쳐 놓고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광경을 여유롭게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어부의 요새와 모스크바 광장 사이에는 저마다의 개성을 자랑하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즐비한데 이 골목에서 영화 '글루미 선데이'의 일부가 촬영되었다. 1988년 발표된 글루미 선데이는 닉 바르코의 소설 <슬픈 일요일의 노래>를 원작으로 한 영화이다. 특히 영화처럼 영화의 주제곡을 들으며 실제로 자살한 사람이 여럿 나와 영화보다 주제곡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유명해졌다. 영화 속에서 레스토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가난한 피아니스트 안드라스(스테파노 디오니시 분)가 살았던 동네와 레스토랑 주인이자 유대인인 자보(요아킴 크를 분),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주인 자보와 피아니스트 안드라스를 동시에 사랑했던 일로나(에리카 마로잔 분)가 함께 걸었던 곳 등이 보존되어 있어 영화 속 분위기를 느끼려는 이들이 많이 찾는다.

어부의 요새에서 조금 이동하면 왕궁이 나온다. 이곳에 성과 왕궁이 들어선 것은 13세기지만 현재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왕궁은 17세기에 재건한 것이다. 도나우 강변의 부다페스트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왕궁은 헝가리 왕국의 역사를 대변하는 건축물답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어부의 요새와 왕궁이 자리한 왕궁 언덕 아래쪽에는 부다와 페스트 사이를 잇는 여러 다리들이 건설되어 있다. 자유의 다리, 세체니, 바치, 에르지베트다리 등 여러 다리들이 두 지역을 연결하는데 영화 글루미 선데이가 촬영된 곳은 일명 사슬 다리로 알려진 세체니 다리다. 영화 속에서 미래의 사업가를 꿈꾸던 한스벤 베커 분(요아킴 크를 분)가 일로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시도하지만 거절당한 것에 비관하여 도나우 강물에 투신하는 장면과 자신의 곡으로 인하여 다섯 명이 자살한 사실을 알게 된 안드라스가 신문기사를 찾아버리던 장면, 자보와 일로나가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던 장면 등을 촬영했다. 세체니 다리는 부다와 페스트 사이를 연결하는 여러 다리 중 가장 오래 된 다리로 1839년 공사를 시작하여 딱 10년이 지난 1849년에 완공하였다. 당시 헝가리 백작으로 여러 분야에 공헌한 세체니 백작이 사재를 털어 건설한 다리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일부가



09



06



07



08

파괴되었던 것을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재건했다.

부다페스트는 헝가리를 상징하는 문화 예술의 도시다. 과거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부다페스트에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인근에 자리한 자그마한 도시 센텐드레(Szentendre)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장인이 보다 많아졌다. 장인과 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센텐드레는 부다페스트에서 도나우 강을 따라 북쪽으로 20km 거리에 위치한 자그마한 도시로 이곳에 예술가와 장인들이 모여살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다. 17세기말 세르비아에서 수천 명의 장인과 수공업자들이 센텐드레로 이주해 온 후 줄곧 세련되고 멋진 생활용품과 예술품을 만들어 보급하게 되었다. 센텐드레에서 만든 예술품과 생활용품이 알려지면서 부다페스트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많은 젊은 예술가와 장인들이 모여들면서 헝가리를 대표하는 예술인 마을로 자리잡은 것이다. 센텐드레는 도나우 강변을 따라 조성되어 있다. 자그마한 도시보다 조금 커다란 마을이란 표현이 더 알맞은 센텐드레는 전체가 박물관이나 갤러리라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센텐드레에 자리한 박물관과 미술관만도 14곳이나 되고 개인이 운영하는 갤러리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훨씬 많다. 더욱 센텐드레 공원과 골목에는 멋진 조각과 함께 누구나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는 벽화 등이 있고 개성 넘치는 젊은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다페스트를 무대로 촬영된 영화는 글루미 선데이 이외도 많다. 하지만 글루미 선데이만큼 부다페스트를 세인들에게 각인시킨 영화도 없다. 앞서 말한 어부의 요새 지역과 세체니 다리 이외도 영화 속 레스토랑이 '군텔'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고도의 정취와 아우러진 부다페스트다.



10



11

옷, 그 이상의 옷!



김정훈 / 과학동아 기자



봄이다. 거리를 지나는 이들의 옷차림이 한껏 밝아지고 가벼워져 보기에도 즐겁다. 인간 세상에 옷은 약 100만 년 전 등장했다. 과학자들은 인류의 털이 적어지면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 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죽옷은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에 실과 바늘이 발명되면서 일대 변혁을 이룬다. 이를 통해 가죽과 가죽을 이어 몸에 맞도록 옷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기원전 3000년 인도에서 식물섬유를 이용한 천이 등장했다. 실을 뽑는 기술과 실과 실을 엮어 천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가죽보다 얇고 세련된 천이 개발되면서 옷은 추위를 막는 일차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이 됐다. 옷의 기능에 일대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그 뒤 산업혁명을 통해 천을 짜는 방직기가 개발되고, 1938년 나일론을 필두로 합성섬유가 등장하면서 옷의 대중화는 급속도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서민들도 값싸고 질 좋은 옷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옷은 새로운 혁명을 맞이한다. IT, BT, NT 등 첨단 과학이 옷에 결합되면서 '입는

것' 이상의 의미의 옷이 등장한 것이다. 이미 등장했고 또 미래에 등장할 첨단 옷의 세계를 살펴보자.

더우면 시원, 추우면 따뜻해지는 옷

2001년 이탈리아 코포 노베시는 기온이 올라가면 저절로 소매가 밀려 올라가는 신기한 셔츠를 개발했다. 이 옷에는 특정 온도가 되면 원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형상기억합금'이 쓰였다. 형상기억합금을 실처럼 기늘게 만든 뒤 일반 섬유와 함께 짜서 천을 만든다. 형상기억합금이 변하는 모양을 이용해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 자동으로 소매가 올라가 시원하게 해준다. 옷이 구겨졌을 때 다림질 할 필요 없이 헤어드라이어로 더운 바람을 쐬이면 자동으로 펴지는 것도 장점이다. 금속이 들어있지만 물빨래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추위를 감지해 따뜻하게 해주는 옷도 있다. 이런 옷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물질이 PCM(Phase Change Materials)이다. 원래 PCM은 우주의 열악한 환경에서 우주인과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했다. 상황에 따라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때는 몸에서 나는 열을 흡수했다가 추워지면 저장했던 열을 방출해 따뜻하게 해준다. 현재 스키복, 등산복과 등산화 등에 쓰이고 있다.

빨래가 필요 없는 '자동 세탁 옷'도 개발 중이다. 2005년 미국 크렘스대 연구팀은 은나노 기술을 이용해 빨래할 필요가 없는 섬유를 개발했다. 연구팀의 필 브라운교수는 "섬유 표면을 나노 크기의 은으로 코팅해서 더러운 때가 묻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때가 타도 옷 표면에 살짝 물을 뿌려주면 때가 흘러내린다는 것이다. 이 자동 세탁 옷은 흠먼지가 묻지 않는 연꽃잎의 구조를 본 따 만들었다.

총알도 화염도 뚫지 못하는 옷

사실 이런 첨단 옷은 우선 특수한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더 시급하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특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복이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의 군인과 범죄 현장에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경찰에게 필요한 옷은 무엇보다 방탄 성능이 중요하다. 방탄복은 '아라미드'라는 인조섬유를 여러 겹 겹쳐 만들지만 무게도 활동에 제약이 있다. 총알을 막으면서도 가볍고 가벼운 옷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코오롱 중앙연구원이 개발한 아라미드 섬유 '헤라크론'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헤라크론은 세계에서 가장 질긴 섬유로 미국 듀폰사

의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보다 6배나 강하다. 이는 강철보다 29배에 해당하는 강도로 평상복처럼 가벼우면서도 총알에 뚫리지 않는 방탄복을 만들 수 있다.

미래의 군복과 경찰복은 방탄 성능은 물론이고 각종 IT 기기가 탑재돼 급박한 전장이나 사고 현장에서 상부와 교신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뼈가 부러졌을 때는 옷이 부목 역할을 한다. 나노 입자로 구성된 '페로플루이드(ferro-fluid)'라는 물질은 자기장이 걸리면 순간적으로 유체에서 고체로 변한다. 이를 이용하면 뼈가 부러진 부위의 옷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화재 현장에서 불과 싸우는 소방관을 위해서는 방화복이 필요하다. 현재 소방관이 입는 방화복 대신 가볍고 열 차단 효과는 더욱 뛰어난 방화복이 개발 중이다. 형상기억합금을 사용해 뜨거워질 때 옷이 부풀게 하면 옷과 피부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열을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입는 컴퓨터의 시대 활짝

IT기술이 옷에 결합되면서 이른바 유비쿼터스 웨어러블 컴퓨터(UFC : Ubiquitous Fashionable Computer)의 시대도 열리고 있다. 과거의 '입는 컴퓨

터'가 휴대용 정보기기를 옷에 붙인 형태라면 UFC는 무선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IT와 패션을 융합한 제품을 말한다. 길보기엔 영락없이 옷인데 입을면 신기한 기술이 들어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한 '바이오 셔츠'는 입고 있는 사람의 맥박, 호흡,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 이 셔츠는 지난 2006년 전국체전에 참여한 육상선수 20명에게 보급됐는데 선수들의 운동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선수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바이오 셔츠를 입고 조깅을 하면서 손목시계를 통해 자신의 몸 상태, 속력과 달린 거리 등을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길지 모른다.

UFC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수화를 하면 LCD 모니터로 수화에 해당하는 말이 나오는 옷이 개발됐다. 시각 장애인을 위해 책 위에 소매를 대면 스킴닝해서 책의 내용을 읽어주는 옷도 있다.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입을면 근력을 강화해주는 옷도 개발 중이다.

구약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대가로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그 때문에 옷이 필요하게 됐다고 한다.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생긴 옷이 오히려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인간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기도 하다. 계속 진화 중인 옷의 미래를 기대해 보자.

말의 태도를 정하는 단어와 말투

공문선 / 커뮤니케이션클리닉 원장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점수로 매겨보는 놀이가 있다. 방법은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를 붙여 이를 합해 보는 것이다.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하여 z는 26이다. 각각의 단어마다 해당되는 숫자를 찾아 합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열심히 말한다는 의미의 'hard talk'는 계산해 보면 75점이 나온다. 지식을 의미하는 'knowledge'는 96점이고, 말하는 기술 즉 'skill'은 64점이 나온다. 그렇다면 100점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말할 때의 태도를 말하는 'attitude'다. 같은 내용의 말인데도 상대방이 내 말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기도 하고 도중에 말을 가로막거나 귀를 막는 이유는 내가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에 달려있는 셈이다. 말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단어의 선택과 말투, 두 가지다. 즉, 내가 말할 때 어떤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가와 내 말투가 어떤가에 따라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면 된다.

먼저 단어가 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 하나를 살펴보자.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방에 따로따로 모았다. 각 방에는 사전에 칠판을 놔두고 한 집단의 칠판에는 '무례한(rude)'이라는 말을 적어 놓았다. 그렇지만 별도로 그 말을 설명하거나 일부러 읽어보게 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방의 칠판에는 역시 같은 조건으로 '공손한(polite)'이라는 단어를 칠판에 적어놓았다.

이 두 실험 집단의 사람들에게 어떤 두 사람의 대화를 관찰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대화를 중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알

려 주었다. 그 결과 실험자들이 '무례한'이나 '공손한'이라는 단어를 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남의 대화를 중단하는 행동을 보여 준 사람들의 비율이 '무례한'이라는 단어를 제시 받은 집단에서는 67%나 됐고 '공손한'이라는 단어를 제시 받았던 집단에서는 16%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은연중에 '무례한'이라는 단어와 '공손한'이라는 단어에 영향을 받아서 대화방법이 달라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런 행동의 원인으로 '의식이하의 지각(subliminal perception)'이라는 메카니즘을 제시하는데 어떤 단어를 의식하지 못하는 수준 이하에서도 그 단어가 사람의 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1958년, Vicary라는 사람의 실험이 이를 입증해 주었는데 극장에서 영화 상영 중에 "팝콘을 먹어라(Eat Popcorn)"와 "콜라를 마셔라(Drink Cola)" 하는 말을 1/300초씩 매 5초마다 번갈아가며 별도의 투영기를 가지고 영화에 겹쳐 비춰서 보여 주었다.

물론 1/300초 동안 영화에 겹쳐서 비춘 글자는 사람들의 절대적 한계 이하의 상황이므로 지각될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끝난 후 팝콘의 판매는 평소보다 58%가, 콜라의 판매는 18%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 실험에서 보듯이 대화중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가에 따라 그 단어가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의 잠재의식에 깊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불평이나 부정적인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어서 대화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화 시에 긍정적이고 밝은 표현을 자주 사용해야 상대방의 잠재의식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대화가 즐거워지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동네 아이들에게 바보라고 놀림을 받고 온 바보 온달에게 평강공주가 "당신 정말 바보 아니? 아이들한테까지 놀림을 받고 오다니. 이런 등신하고 같이 살다니? 아이고 내가 못살아" 라고 했다고 보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한 단어 가운데 '바보', '놀림', '등신'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보 온달에게 평강공주는 '바보'라는 부정적인 말을 삼가고 항상 "두고 보세요. 당신은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을 거예요"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했다. 반복되는 긍정적인 이 말이 바보 온달의 잠재의식에 뿌리를 내리고씩이 트기 시작했고 결국은 말 그대로 위대한 장군이 되게 하는데 씨앗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쓰면서 말을 해야 한다.

집에서 아이들한테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니? 형편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주려는 말이지만 아이들은 잠재의식으로 '형편없다'는 감정적인 단어에만 집착을 하게 되고 "그래 나는 형편없어, 어차피 글렀어"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비뚤게 자라기 쉽다고 한다.

직장도 마찬가지다. 모 그룹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직장에서 업무능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뽑아봤다. "그것도 몰라"와 "그것밖에 안 돼" 두 말이 동시에 1위에 올랐는데 결국 상대방을 무능력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부정적인 단어의 사용으로 인해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말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말투다. 말투란 말을 하는 버릇이다. 버릇이란 오랜 시간동안 형성된 자신만의 독특한 습관인데 말도 입에 배어 굳어 버리면 입버릇이 된다. 대화중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주 사용하는 입버릇의 지배를 받는데 문제는 내 입버릇에 따라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좋지 않은 입버릇 중에 하나는 수동형 표현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은연중에 자주 수동형 표현들

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어제 술 먹다가 3차까지 끌려갔어"라고 말하거나 "이번에 A프로젝트를 떠맡았어", "위에서 하라면 해야지 뭐", "교육 받으러 갔다가 올게"라는 식의 말들이 모두 수동형 표현이다. 수동형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지만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주관이 없어 보이거나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다. 또, 이런 수동형 표현을 자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가 부족한 소극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결국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뺏기기 쉽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마련이다.

수동형 표현은 가능한 능동형 표현으로 바꿔 줘야 자신감 있고 주도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에서 하라면 해야지"가 아니라 "위에서날 믿고 시키니 멋지게 해낼 거야"로 표현해야 한다.

말끝마다 늘 변명을 일삼는 말투도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태도가 아니다. 먼저 항상 자신의 상황을 알아서 비하하는 변명의 말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는 "집이 누추해서 어떡하죠" "차린 게 별로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오히려 불편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명의 말투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다른 이의 탓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방에게 오히려 핑계나 대는 무책임한 사람으로 비춰지기 쉽다. 옳든 그르든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표현하고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는 말투는 주변 사람에게 신뢰감을 준다.

'홀'이라는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 헬스장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경우 혈맥이 뛰며 운동할 때와 옆 사람에게 이 정도는 별 것 아니야 하는 태도를 보이며 운동할 때 힘든 정도를 각각 물어 보았더니 별 것 아니라는 태도로 운동할 때 훨씬 덜 힘들다고 대답했다.

결국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태도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달라지고 성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명심하고 평소에도 가능하면 능동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말투를 가지도록 노력해야겠다.



묵안리 주민과 함께 떠난 발전소 나들이

새봄을 맞이하여 지난 3월 16일 우리회사 농어촌 결연마을인 경기도 가평군 묵안리 주민들과 함께 발전소 견학행사가 마련되었다. 이날 김유명 이장의 마을 주민 48명은 우리회사가 설계한 울진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발전소 홍보관, 전망대, 발전소 내부 등을 찬찬이 둘러보았다. 또한 발전소 견학후에는 인근 관광 명소인 성류굴을 관광하는 등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를 증진하고 회사와 마을 주민간의 상호 공감대를 돈독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던 이날 행사의 즐거운 표정들을 카메라에 담아보았다. 우리회사는 2005년 KOPEC참사랑봉사단을 조직하여 전사 차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활동 중 하나로 경기도 가평군 묵안리와 결연을 맺어 노력봉사, 성금전달, 지역 농산물 구매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31기 신입사원 교육을 마치고 KOPEC인으로서의 첫 관문을 통과하다

윤세진 / 원자력사업관리실



“우리회사 채용에는 7년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말이 말과 함께 교육을 시작할 정도로 지난 2개월여의 교육기간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입사한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신입사원들은 지난 7년의 공백을 채우고, 새로운 30년을 열어야 할 ‘책임감’ 속에서 KOPEC인이 되었다. 그 관문이 되었던 2개월 동안의 보람된 신입사원 교육 시간을 오리엔테이션부터 발전소 현장교육까지 하나하나 되돌아본다.

입사식 다음날인 12월 22일의 이른 아침,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위해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 모인 우리는 서로의 어색한 표정과 마주해야만 했다. 하지만 낯설음으로부터 비롯된 그 어색함은 채 한 시간을 넘기지 못했다. 교육 첫 순서에서 ‘ice breaking’을 책임진 레크리에이션 강사의 진행도 훌륭했지만, 31기 신입사원들의 성격도 그만큼 적극적이었다.

서로 얼굴을 익힌 뒤에는 본격적으로 회사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이 시작되었으며 각 사업단 단장을 비롯해 처·실장들이 직접 회사의 역사와 부서별 업무를 소개해주었다. 사내의 많은 부서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내용은 ‘자기계발’과 ‘양보’, ‘조화’의 중요성이었다. 그동안은 학생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의 삶에 충실하고자 했겠지만 이제 한 조직의 구성원이 된 만큼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특히 우리회사는 다양한 부서의 수많은 결과물을 모아 하나의 사업을 완성해

야하므로 양보와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통하여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우리회사의 대내외적 위치와 역할에 대해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으로 기억된다.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능률협회의 ‘신입사원 Good Start 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된 직장인 소양교육은 나흘간 합숙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는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경영마인드 등을 배울 수 있었으며, 강의식 교육 외에도 7~8명씩 한 조를 이뤄 과제를 수행,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조별 활동이 많았다는 점, 합숙교육이라는 점 덕분에 동기들끼리 부쩍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받다가도 조별 과제가 떨어질 때면 어김없이 발휘된 놀라운 집중력은 강사들도 칭찬할 만큼 대단했다.

모의경영 시간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우리 그룹의 경영자 역할을 담당했던 한 친구는 가상이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자신의 방식에 스스로 놀랐다고 한다. 결과물을 신속하게 내놓지 못한다며 구성원들을 다그치고, 조금씩 행동하는 모습은 자신의 평소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달았다. 는 동료의 소감은 옆에서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바가 컸을 것이다.

1월 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접하는 OJT교육이 시작되었다. 사무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속부서 교육’과 ‘타부서 순환교육’이 병행된 OJT는 교육 본연의 역할과 함께 회사와 선배들에게 우리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교육을 담당했던 한 분, 한 분이 대학의 교수님을 떠올리게 할 만큼의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었으며 이러한 인적자원이 회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T/C 교육, IPMS 교육, 품질보증, 지적재산권 등의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으며, 선배사원 및 경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회사에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힘들었던 만큼 가장 큰 추억이 된 극기훈련. 출발은 즐거웠다. 버스 안에서 생일파티를 했고, 가는 동안 내내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몇몇 남자 동기들은 “2년의 군 생활도 경험했는데 나눌 정도 못 참겠어?” 하는 등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표정들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하이고, 하이고’ 하는 곡소리를 들으며 잠들어야 했다.

그만큼 해병대 아카데미에서의 교육은 타이트한 일정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 진행되었다. 레펠훈련, IBS(해상보트훈련) 등 모든 과정에 예외는 없었으며, ‘우리’가 아닌 개인은 용납되지 않았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못하겠다고 떼를 써도 주어진 과업은 반드시 수행해야 했고, 뒤쳐진 동기는 또 다른 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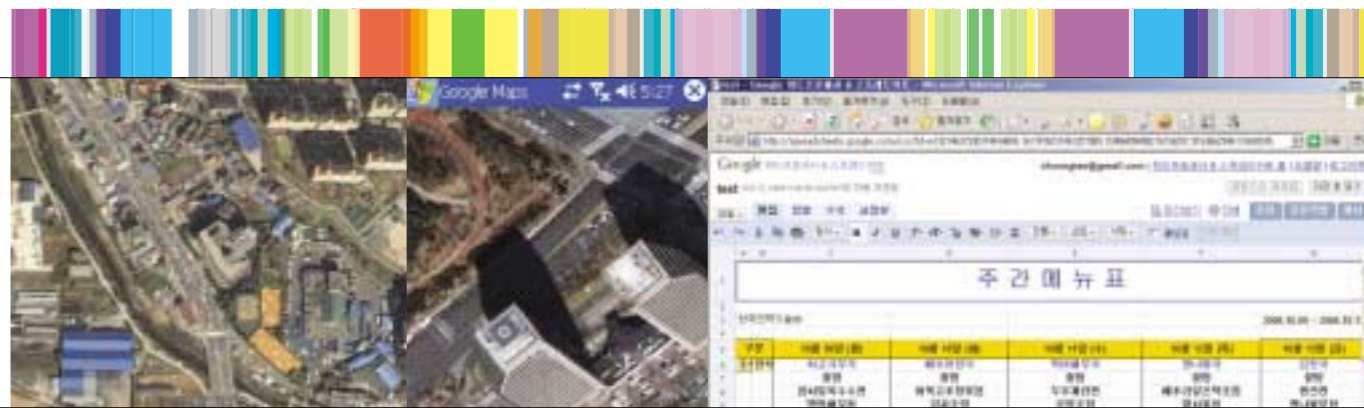
이었기에 끝까지 응원하며 함께 해야만 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과업을 이뤄내면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땀땀 뭉쳤던 3박4일. 내 옆자리에 함께한 ‘너’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힘들었던 극기훈련이 끝나서였을까. 발전소 견학은 마치 학교에서의 수학여행과 같은 느낌이었다. 대전의 원자로설계개발단과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전원자력연료(주)를 거쳐, 무주양수발전소, 고리·월성원자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에 이르는 3박4일의 여정은 메이저리그에 갓 입단한 루키가 홈스타디움에 첫 발을 내딛는듯한 감상을 자아내도록 했다. 발전소라는 것이 사무직 동기들에겐 다소 생소한 시설이었겠지만 다들 사뭇 진지하게 이곳, 저곳을 살펴보았다. 원자력 사업에 투입될 나의 경우엔 특히 신고리1,2 현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현장에 파견 나와 있는 윤순철 소장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이 거대한 녀석들을 창조해낸 이가 바로 우리 선배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돌아보면 2개월 남짓한 지난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진다. 이제는 동기들의 웃는 얼굴을 한 자리에 모두 모을 수 없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31기 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0년보다 더 밝게 빛날 미래의 KOPEC을 기대해보며, 엔지니어링 기본교육에서 다시 만날 나의 마흔셋 동기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구글(Google)로 업무를

김충태 / 전력기술개발연구소 부장



구글 어스로 본 용인사옥

구글 어스로 본 여의도

출장지에서 본 본사 식당메뉴

사실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회사 업무를 외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많이 수월해졌다. 물론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휴대하면 인터넷을 이용할 필요도 없지만 말이다. 그래도 체력 단련한다는 여유를 부린다면 모를까, 장거리 출장시 4kg이 넘는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외부로 출장갈 때 손가락만한 USB 메모리에 아래아한글, MS워드, MS엑셀, 파워포인트 등 작업 파일을 담아 간다. 이럴 경우 작업 파일만 가지고 가므로 출장에서 작업을 하려면 컴퓨터도 있어야 하고 그 컴퓨터에 작업 파일을 구동

시키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애로가 있다. 우리회사는 공식 문서가 MS 오피스인데, 우리가 자주 출장 가는 발전소의 경우 MS 오피스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요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회사이며, 최근에 대표적 UCC사이트인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Google)을 이용하면 웬만한 회사업무는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구글은 많은 사람들이 검색기능을 제공하는 포털로만 알고 있지만, 검색외에도 전자우편, 캘린더, 메시지, 전자지도 등 많은 기능을 웹으로 제공하고

있다. 모든 기능을 웹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지메일(Gmail)

지메일은 구글이 제공하는 전자우편(email)의 이름이다. 대부분의 웹메일과 달리 지메일은 가입이 제한되어 있다. 지메일을 이용하려면 기존 사용자로부터 초대장을 받아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메일과 달리 대용량 1G(기가)를 제공하고 저장 용량이 크다 보니, 메일을 삭제하는 메뉴가 없다. 그냥 무조건 오는 대로 받아서 쌓아 놓기만 하면 되니까 신경 쓸 일이 없다. 특히, 외부 메일과 연동기능이 뛰어나 아웃룩과 연동시켜 놓으면 회사로 오는 메일을 그대로 복사하여 지메일에 담아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간 출장시 외부에서 지메일을 열어보면 회사 앞으로 온 메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큰 용량을 활용하여 회사 메일의 백업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편리하다.

구글 어스(Google Earth)

구글 어스(Earth)는 구글의 전자지도로 전세계의 위성항공 사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북한 영변의 핵발전소 사진도 일반인이 검색해서 볼 수 있고 청와대 인들의 잔디 풍경까지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위 사진은 용인사옥을 구글어스로 검색한 것이다. 회사 앞 삼거리와 서울우유 정수장도 선명하게 보인다. 국내는 GP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노트북 또는 PDA와 연결하면 위성 네비게이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구글 오피스

대표적인 워드프로세서와 스프레드시트인 MS워드와 엑셀을 웹상에서 열람하고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는 구글 오피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없어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구글 오피스를 통해 워드문서나 엑셀문서를 올려서 내용을 볼 수 있고 수정도 할 수 있고 물론 저장도 가능하다. 스프레드시트의 경우

차트만 제공하지 않을 뿐 대부분의 수학함수를 제공하고 있어 엑셀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 위 그림은 위성원자력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본사 식당의 주간메뉴를 확인한 것이다.

구글 토크와 구글 캘린더

구글에서는 구글 토크(Google Talk)라는 음성통화 기능이 내장된 간단한 메신저를 제공하고 있다. 요즘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Skype와 비슷한 음질을 보여준다. 급할 경우 발전소와 본사간 음성 통화가 가능하다. 물론 무료이다. 구글 캘린더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일정표이다. 아웃룩의 일정과 연동이 되므로 추가로 입력할 필요가 없고 웹상에 계시가 가능하므로 공유가 가능해서 부서 또는 팀별로 일정을 관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글 데스크탑

구글 데스크탑은 강력한 개인용 검색 엔진이다. 구글 데스크탑은 개인 컴퓨

터에 설치된 모든 파일과 파일 내용까지 검색해서 찾아준다.

최근에 수년전에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한 견적서를 찾아야 하는 일이 있었다. 5년전의 엑셀파일에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통신카드 견적서를 찾아내는 작업이었다. 견적서 이름은 통신카드를 납품한 회사이름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파일이나 폴더 검색으로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견적서 파일 개수만도 300여개에 달하므로 기억력이나 일일이 파일을 열어서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구글 데스크탑을 이용하면 모든 파일내의 문자를 검색해서 찾아준다. 불과 몇초내에 원하는 파일을 찾아서 쉽게 일을 마무리한 적이 있다.

구글 데스크탑은 강력한 개인용 검색 엔진으로 문서안의 단어검색(doc, xls, ppt, hwp, pdf 등)은 물론 웹히스토리로, 이메일, 아웃룩의 일정, 작업, 메모까지 찾아준다. 잘 활용하면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된다.



구글 토크

구글 캘린더

Teamwork

윤용준 / 플랜트사업개발처

플랜트사업개발처

그동안 우리회사는 발전설비 설계자립을 위하여 매진하여 왔으며 통합 EC Company로의 도약을 향한 초석을 다져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회사의 경영여건과 직결되는 국내전력산업 환경은 결코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전력산업의 독점체제 대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사업수주환경이 과거에 비해 열악해지고 있고 오일쇼크로 인한 대체에너지 즉 재생가능 에너지의 점진적 의무할당제 도입 등과 기후변화협약 및 수도권대기오염 총량규제 등 환경관련 준조세 성격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전력수요의 포화기가 도래하면서 우리회사의 주 수입원인 신규 대형발전소 건설사업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난 30년동안 대형발전소 종합설계사업을 회사발전의 주 동력원으로 삼았던 우리회사로서는 이제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발하여 미래에 대비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국내에서는 향후 10년내 소규모의 집단에너지사업이 2,500MW 이상 계획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2011년까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5%를 차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노후화된 발전소의 성능개선 및 수명연장을 위한 O&M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플랜트사업개발처는 국내개발팀, 해외개발팀 및 기술조정팀으로 구성되어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개발에 임하고 있다. 사업개발팀에서는 국내외에서 발주되는 설계용역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수립한 국내외 사업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정보수집, 제의서 작성, 예상수지분석안 작성, 발주처 협상 및 입찰, 계약협상 지원 등의 과정을 통해 업무가 이루어지게 된다. 기술조정팀에서는 사업단 사업기술업무의 조정 및 총괄관리, 사업단내 교육훈련 및 학술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플랜트사업개발처에서는 MOU를 체결하여 사업개발을 다각화하고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관련 국내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합의서를 마련하고, 한국형배연탈황설비(KEPAR) 해외사업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탈황설비 중국사업 추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광희 차장, 윤용준 씨, 백승혜 씨, 김한철 부장, 박만생 차장, 문지현 과장, 한은경 씨, 심현숙 과장, 김익재 씨, 최양규 차장, 최종석 부장, 김용택 차장, 지상욱 차장.

와 함께 중국 탈황 및 탈질사업과 발전소 설계사업의 공동 수행을 위해 작년 한해동안 에코베이징, 산동백년발전, 청도개원집단유한공사, 산동산대화특환보공정 등과 MOU를 맺었고, 베트남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프로젝트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합의서 및 앙골라 전력화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공동수주하기 위한 협력합의서를 체결하였다.

더불어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의 적극적 사업개발을 위하여 그 교두보로서 2005년에 중국 청도와 베트남 하노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사업 다각화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각종 노력들이 모여 맺은 결실로서 국내사업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인천복합화력 2호기 건설 설계용역'을 2006년 4월, '보령화력 1,2호기 성능개선 및 탈질설비 설치설계기술용역'을 경쟁입찰을 통해 2006년 7월에 수주하였다.

또한 '부곡 2호기 복합화력발전소 설계 기술용역'을 비롯하여 '금호TDF 연소 열병합 발전소 설계/감리 기술용역', 제안형 사업인 '현대 제철가스발전소 건설 발주자 지원용역' 등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해외사업 분야에서는 '나이지리아 Afam VI 설계기술용역'의 계약을 2006년 1월에 체결하였고, '나이지리아 2250MW 가스발전소 및 가스관로 건설운영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주함으로써 사업진출지역 다변화에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미국의 Bums & McDonnell에 기술인력을 파견함으로써 우리회사 기술력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들을 이루어낸 플랜트사업개발처의 팀원들을 소개한다.

먼저 올해 3월에 부임한 박만생 사업개발처장은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분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개발이 전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다. 국내개발팀에서는 팀장인 최종석 부장, 지상욱 차장, 백승혜 씨, 김익재 씨가 사업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최종석 부장은 신입사원들에게는 아버지처럼, 중견사원들에게는 형처럼 따뜻한 배려를 해주고 있다. 온화한 인상을 지닌 지상욱 차장은 학구적인 면을 겸비하고 있어 대학교수가 되었어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원어민에 가까운 중국어 실력을 가진 백승혜 씨는 업무 또한 시원시원하게 처리하며, 김익재 씨는 경상도 토박이 사투리를 구수하게 구사하며 과묵하게 비한전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팀장인 강광희 차장, 최양규 차장, 심현숙 과장, 문제현 과장, 그리고 나윤용준, 이렇게 5명이 해외개발팀의 멤버를 이루고 있다. 팀장인 강광희 차장은 변화하는 해외사업개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사업개발처의 원년 멤버인 최양규 차장은 베테랑답게 업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회식자리에서는 특유의 팝송 노래로 자리를 빛내준다. 심현숙 과장은 대내외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많은 업무들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있으며, 서글서글한 인상의 문제현 과장은 팀의 분위기를 화기에애하게 만드는 솜씨가 일품이다. 그리고 나윤용준은 중국과 베트남의 해외 연락사무소관련 업무를 지원하면서 사업개발처의 일원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또한 기술조정팀의 팀장인 김한철 부장은 온화한 태도로 주위 사람들과 어울려 나가며, 김용택 차장은 특유의 유머로 주위를 밝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개발처의 일등신부감인 한은경 씨는 예산 총괄업무를 비롯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TEAM은 "Together Everyone Achieves Miracles"의 약어라고도 한다. 각기 다양한 개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꿈과 비전,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를 함께 한다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들을 이루어 낼 수 있고, 그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플랜트사업개발처, 나아가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인도네시아의 마라톤 회의

이민수 / 행정처 과장



석탄채굴현장



지질조사 시추장비



회의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석탄화력 IPP사업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발전소부지조사를 위한 발주처(한화건설, 한국서부발전)와의 제2차 합동조사팀에 사업행정 담당자로서 합류하게 되었다. 발주처 2개회사에서 각 2명, 우리회사에서 5명 모두 9명이 합동조사팀이었다.

첫날, PLN-E와 타당성 조사 관련 회의가 9시 30분에 예약되어 있었다. PLN-E는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의 엔지니어링 자회사이며, 우리회사에서 타당성조사 역무와 관련해 지질 및 측량 조사와 인도네시아의 전력 현황 및 발전소, 석탄 공급관련조사 등의 역무수행을 위해 현지 업체의 도움을 받으려고 계약을 체결했다.

먼저 PLN-E의 조사수행현황 설명이 시작되었다. 동남아 특유의 영어식 발음은 조금 낯설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점차 익숙해졌다. 인도네시아 문자는 알파벳이고 알파벳 발음 그대로 읽으면 된다. 그런데 말투가 너무 빨라 간혹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인도네시아 사람끼리 이야기 하는 것을 듣다보면 모 개그프로그램에서 여성 개그맨이 뉴스형식으로 동남아언어를 흉내 내던 프로그램이 떠오르는데 실제 말투속도는 그 개그맨보다 더 빠른 것 같다. 하지만 실생활을 들여다보면 동남아 특유의 여유로움이 여기저기서 느껴진다.

실제로 남부 수마트라 석탄화력발전소 4기 건설도 1년에 1호기씩 준공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수마트라섬은 전력수요 증가에 비해 전력 공급률이 낮아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정전되는

상황이지만 발전소 건설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약 7시간의 PLN-E와의 제1차 마라톤회의를 지켜보면서 우리회사 엔지니어의 대단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발주처인 한화와 서부발전도 회의 중간중간 의제를 제시하긴 했지만 우리회사의 주도하에 모든 회의내용은 진행되었다.

다음날에는 남부 수마트라 발전소 부지 현장조사와 석탄공급지 및 인근 유사발전소 방문 등을 위해 팔렘방으로 갔다. 가기 전에 발전소 부지가 정글 같은 곳일지 모른다고 혼자서 추측했지만 국도에서 그리 멀지 않아 접근하기가 쉬웠다. 수마트라 지역이 석탄지대라고 들긴 했지만 발전소 부지로 갈 때 철길 위를 따라 걸으면서 철로 밑이 온통 석탄이라는 것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물론 석탄품질이 아주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온통 석탄으로 깔려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팔렘방에서 발전소 부지 근처 지역까지 지하가 온통 석탄지대라고 하고, 수마트라섬의 석탄 저장량이 인도네시아 전체 저장량의 65%를 차지한다고 한다.

PLOT PLAN상의 위치나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신규 발전소 부지를 샅샅이 조사한후 신규 발전소 인근의 PLTU BUKIT ASAM POWER PLANT(65만MW X 4기)를 방문해 발전소 운영 현황을 듣고 발전소 내부 운전현황과 컨트롤 룸을 보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이 발전소는 1985년에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발전 중인데 중앙통제실에서 근무하는 인원

이 22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에선 일의 효율성이나 효과보다는 가능하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추구하는 것 같았으며 지질조사 시추장비를 운반할 때에 기계로 운반하기보다는 사람 여럿이 직접 운반하는 경우도 그런 목적을 위한 또 하나의 사례로 보였다.

PLTU BUKIT ASAM POWER PLANT의 연료인 석탄은 인근의 거대한 탄광지역에서 톤당 \$22에 공급받고 있다고 한다. 발전소 방문 후 BUKIT ASAM(국영 석탄회사)의 안내로 석탄 채굴 현장을 보는 순간 놀라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백 미터까지 지하로 파고 들어가 석탄을 채굴하지만 여기에서는 거대한 기계를 그냥 움직이면서 석탄을 바로 끌어 담아 트럭으로 운반하면 된다. 해발 약 200~300 m 산을 깎아 내려가면서 몇 백만평의 땅 위에 거대한 채굴기계가 오가면서 쉽게 석탄채굴을 하는 것이다. 이런 곳이 여러 곳이라고 하니 참 부러울 따름이다. 이곳에서만 지금까지 약 200년 동안 석탄을 채굴해왔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채굴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엄청난 원을 만들면서 지하 2~3km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 채굴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석탄채굴 현장이다. 물론 신규발전소의 주연료인 석탄도 이곳에서 장기 공급받게 된다.

다음날 신규발전소 부지 지질조사 시추 현장을 감독하기 위해 발전소 부지로 다시 가보니 지질조사 시추업체에서 시추를 하고 있었다. 시추해야 할 시추공은 6개이지만 20일 정도의 시

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추장비(약 1톤)가 자체 동력으로 부지현장을 이동하면서 시추하기 때문에 7일이면 충분한데, 여기에선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무거운 장비를 20여 명의 사람들이 직접 6곳의 시추지점으로 옮겨서 시추를 하기 때문이다. 신규발전소 부지는 농민들이 개간한 농지와 낮은 산으로 구성되는데 약 1톤이나 되는 시추장비를 논두렁을 넘고, 산으로 옮겨 시추한다고 하니 참 힘들게 작업한다고 생각되지만 나름의 목적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시 자카르타로 돌아와 이번 합동조사 및 협의를 토대로 PLN-E와의 분야별 항목별 세부적인 기술회의가 시작되었다. 역시 이번에도 오전 9시에 시작된 회의는 오후 7시가 되었는데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타당성 조사용역의 토목분야책임자, 기계분야 책임자, 환경분야 책임자, 전기분야 실무자인 내분은 지칠 줄 모르고 이전 사항에 대해서 다시 묻고 확인하기를 되풀이 하였다.

이분들의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보면서 내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하였다. 회의실의 열기는 사뭇 자카르타의 현지 기온만큼 뜨거웠고 돌이켜보면 며칠 간의 발전소 부지 현장 조사, 인근발전소 방문 및 조사, PLN-E와의 2번에 걸친 마라톤 협의 등 시간을 망각한 듯 일정이 흘러갔다. 이번 해외출장은 사업 행정 실무자인 나에게 사업 참여자들이 어떻게 난관을 뚫고 해외용역을 수행하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우리가족 만세'는 화목하게 살아가는 직원 가족을 소개하는 난입니다. 주위에 소개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면 홍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술처 김성남 과장 가족

엄마, 피아노 치자

촉촉한 봄비로 하루가 다르게 창밖 풍경은 연초록으로 물들어 가고, 사람들 마음에도 그 기운이 전해지는지 내내 설레는 계절의 처음, 삼월입니다. 아직은 쌀쌀한 이즈음, 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새 훌쩍 큰 유진은 뒤돌아다보지 않고 입학 다음날부터 교실로 달음질쳐 가더군요. 뭔가 가슴이 벅벅해지는 느낌, 앞으로 이 서운함은 자주 저를 찾아오겠지요. 곧 엄마보다 친구가 좋은 학창시절이 시작될 겁니다. 울진 현장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올라와 지금도 사택과 읍내 친구들을 못내 그리워하는 아이에게, 푸른 바다와 갈매기, 사택 정경은 고향입니다. 울진에서의 어린이집 1년 반 정도가 사회생활의 전부였던 큰애, 엄마인 제가 선생을 자처하며 한글, 수학에서 영어, 피아노까지 학습 전반을 가르치며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 어린 손으로 엄마와 곧잘 젓가락 행진곡을 연탄으로 쳐내는 아이와 음악적 교감을 나누는 기쁨은 무엇과 비교해야 할지……. 연탄곡을 가르친 이유는, 혼자만 잘 해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 다른 이와 발을 맞출 줄 아는, 배려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였습니다. 엄마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만 나면 엄마와 피아노 치자고 조르는 녀석입니다.



여섯 살인 둘째 영진이 역시, 일주일에 두 번 언니와 발레학원에 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랑 보냅니다. 어린이집에 조금 보내 보았지만, 폐렴과 감기의 반복으로 체력이 약해져 집에서 쉬며 가르치기 시작한게 제 이름 석자를 써 내고, 차에 타고 지나가며 상점 간판을 읽어내는 순간이 오기까지 모녀간에 실랑이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큰애에게 기려서 왼손잡이인 줄 뒤늦게 알게 되어 오른손 힘을 키워 글씨 쓰게 하느라 힘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고비마다 차분한 남편의 중재 역할이 있었기에 가정학습은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둘째가 공부하기 싫다고 눈을 질끈 감고 버티던 순간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이 모든 유년의 추억 속에 엄마, 아빠가 풍경처럼 자리하게 되어 우리부부는 참 행복합니다. 어쩌면 저는 학원과 유치원에 아이를 빼앗기기 싫은, 두 아이와 모든 걸 공유하고 싶어 하는 욕심쟁이 엄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가족이 아닐까요. 이런 중에, 한기 문예에 응모한지도 햇수로 8년째, 어느 해보다 운이 좋았는지 제게 최우수상이 돌아왔습니다. 1999년 결혼 이래로 남편의 부추김으로 일년에 한차례씩 소소한 글 한편씩 내보이고 기념품 받는 재미에 참여한게 이렇게 큰 상으로 돌아오다니, 축하도 많이 받고,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엄마와 아내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림에, 두 아이 모든 걸 욕심껏 손수 가르치다보니 아무래도 올해부터는 저 역시 간신히 참가만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기 문예와 미전은 우리 가족의 중요한 연중행사중 하나가 될 겁니다.

김훈이 / 김성남 과장 부인



Copyright Jerry Uelsmann / Untitled / 1977



Copyright Jerry Uelsmann / Untitled / 2006



Copyright Jerry Uelsmann / Self-portrait / 1990



Copyright Maggie Taylor / cloud sisters / 2001



Copyright Maggie Taylor / what to think / 2005

Maggie & Jerry

암실에서 전통 인화방식을 사용한 아날로그 합성 사진의 세계적인 거장, 제리 울스만(Jerry N. Uelsmann)과 컴퓨터를 사용한 디지털 합성 사진작가로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고 있는 제리 울스만의 아내, 매기 테일러(Maggie Taylor)의 대규모 사진전이 6월 9일까지 한미사진미술관에서 열린다(02-418-1315). 두 작가의 작품 150여 점을 선보일 이번 전시는 지난해, 한미사진미술관 초청으로 처음 우리나라를 방한한 제리울스만이 당시 작업했던 한국을 소재로 한 작품 10점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로서도 주목된다. 두 작가 모두 초현실적인 상상력에서는 공통되지만, 1960년대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제리 울스만의 이미지 작업은 자연, 인간, 신화적인 모습들을 합성하여 환상적이면서 때로는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주는 반면 1996년부터 컴퓨터 작업을 시작한 매기 테일러의 작품은 동화속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등 부부 작가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탄력성으로 세상보기

유병률 /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유난히 전략에 탁월한 동료들이 있습니다. 기획 회의를 해보면 표시가 납니다. 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핵심을 찌릅니다. 기승전결도 확실합니다. 돌아가는 유행에 그다지 민감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는 늘 신선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기본기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 아닐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탄력성' 개념은 돈보기 같은 존재입니다. 잘 안 보이는 것도 탄력성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현상에 내재한 질서가 보입니다.

탄력성이 뭐길래

경제학의 탄력성(彈力性·elasticity)이라는 게 사실 별 것 아닙니다. 여자 분들이 신는 스타킹의 탄력성과 비슷합니다. 떡볶이 장사를 하더라도 명동 한복판에서 할 때와 초등학교 앞, 여자대학 앞에서 할 때는 가격 책정과 메뉴 구성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가격 변화에는 둔감해도 매운 맛에 대한 탄력성은 대단히 높은 여대생들을 상대로 초등학교 앞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기업의 가격 전략, 브랜드 전략, 마케팅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력성에 대해 좀더 부연 설명하자면, 우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가격을 10% 올리면 판매량이 어떻게 될 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상이 크게 떨어졌으면 탄력성이 높은 것이고, 매상에 별 변화가 없으면 탄력성이 낮은 것이죠.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elastic)이라고 하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inelastic)이라고 합니다. 탄력성이 1이라면 가격을 내리든 판매량이 똑 같은 비율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수입에는 변화가 없겠고, 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대체재가 많이 생길수록 커집니다. 주스류를 포함해 건강음료 시장을 한번 보죠. 옛날에는 오렌지 주스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토마토 주스, 당근 주스, 키위 주스, 녹차 음료수, 홍삼 음료수, 보리 음료수 등 신제품들이 계속 생기지 않았습니까. 주스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음료수들이 많이 생길수록, 주스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주스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주스를 먹던 소비자들이 다른 음료수로 옮겨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꼭 가격만이 아닙니다. 소득이 10% 올랐을 때 매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보석이나 명품 등과 같은 사치품일수록 쌀, 채소 등의 필수품보다 소득 탄력성이 높습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밥을 다섯 공기 먹을 수는 없지만, 옷은 명품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창업을 생각하는 독자들이라면 귀 기울여 들어 보십시오. 웬만하면 소득 탄력성이 높은 사업 아이템을 고르십시오. 소득이 늘어난다면, 매상도 늘어나는 업종 말입니다.

탄력성의 위력과 '메가박스'

오래 전 메가박스의 한 관계자에게 "왜 이렇게 잘 나가냐"고 물었더니, "관객들은 천차만별인데 극장 요금과 서비스는 왜 천편 일률적이냐는 문제의식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명답이다 싶었습니다. 메가박스는 주말보다 평일에 요금을 더 싸게 받습니다. 심야 시간대에는 대폭 할인을 해줍니다. 새 영화는 주말에 개봉한다는 고정 관념도 탈피했죠. 지금은 보편화된 이런 서비스들의 원조가 바로 메가박스입니다. 초기 멀티플렉스 시절에 극장의 하드웨어만 보면 CGV나 롯데시네마 등과 크게 다를 게 없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에서의 차별화가 메가박스를 단 시일 내 멀티플렉스의 강자로 부각시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말에 극장 요금이 1,000~2,000원 더 비싸다고 모처럼의 데이트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평일에 요금을 내려 준다면 퇴근하고 동료들이랑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처럼 관객들은 극장 요금에 대해 평일보다 주말에 더 둔감해지고, 주말보다 평일에 더 민감해집니다. 심야 할인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심야에 요금을 할인해 준다면, 알뜰한 올빼미족들이 영화를 더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실제 24시간 관광 특구인 부산 해운대의 메가박스는 심야 시간대 관람료를 4,000원으로 조정하자 심야 관객이 3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작 개봉도 그렇습니다. 영화 개봉을 토요일에서 목요일로 옮길 경우, 토요일 관객들은 줄지 않는 반면, 목요일 관객들은 늘어날 겁니다. 결론적으로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극장 요금, 극장 서비스에 대한 관객들의 민감도가 다르다는 점을 심분 활용한 것이죠.

소비자를 나누는 기본 잣대, 탄력성

탄력성 개념이 기업 마케팅 전략의 핵심코드가 될 수 있는 것은 소비자들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부터 영화관에 가면 성인과 청소년 요금이 다릅니다. 청소년들이 요금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조금만 가격을 내려줘도 영화를 보러 오는 청소년들이 늘지 않았습니까. 휴대폰 가격도 그렇더군요. 노인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수십만 원짜리 휴대폰은 쓸모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동영상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20대들에게는 비싼 휴대폰이 '꼭 필요한 사치'입니다. 비싸도 사는 것이죠. 같은 휴대폰 구매자라도 이렇듯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이 가능한 것이죠.

시간, 장소, 사람에 따라 가격을 바꿔라

기업전략에서 탄력성이 위력적인 이유는 소비자들을 세그먼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소비자들을 여러 유형으로 나눠서 가격이나 서비스를 차별 적용하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는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따른 가격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일리지를 두배로 제공하는 할인점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손님을 더 끌기 위한 전략이겠죠. 야구장 평일 입장권이 더 싼 것도 이런 이치입니다. 렌터카 업체나 호텔들이 비성수기나 평일에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도 탄력성 개념을 활용한 가격차별입니다. 비성수기인 겨울이라 해도 요금만 할인해준다면 호텔 릴렉스의 사치를 한번 누리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장소에 따른 가격차별입니다. 제품을 지리적으로 구분해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이죠. 똑같은 음료수라 해도 목욕탕 안에서 파는 것이 더 비쌌습니다. 대중 목욕탕에서의 음료수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길거리보다 낮기 때문이죠.

셋째, 구매자에 따른 가격차별입니다. 고객의 사회적 지위나 구매력에 따라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이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수출 가격을 국내 가격보다 낮게 매깁니다. 국내 소비자와 외국의 소비자들의 국산차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비교하면, 당연히 외국 소비자들이 더 민감하지 않았습니까. 외국 소비자들이야 살 수 있는 차가 많기 때문이죠.

가렵다고 긁지 마세요

임호준 / 조선일보 의료건강팀장, 헬스조선닷컴 운영본부장

‘고양이가 조개를 먹으면 귀가 떨어진다’는 일본 속담이 있다. 얼마나 가려웠으면 제 귀가 떨어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박박 긁어댈까? 가려움증은 그만큼 고통스럽다. 마치 바늘로 찌르듯 따끔따끔 가려워지면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도록 긁어도 직성이 풀리지 않는다. 땀을 많이 흘리고 무좀과 습진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엔 가려움증의 고통도 극에 달한다.

가려움은 통증을 느끼는 피부 신경이 약하게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무좀이나 건성,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만 떠올리지만 건성 피부, 피부 노화 등이 더 흔한 원인이다. 예민한 성격이나 불안한 마음 등 정신적인 원인 때문에 가려운 경우도 매우 흔하며 음식, 약, 옷, 장신구, 온도 변화, 임신 등도 경우에 따라 가려움증을 일으킨다. 갑상선 질환, 당뇨병, 빈혈, 암과 같은 내과적 질환의 합병증으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가려움증이 지속되면 가려운 부위가 국소적인지 전신적인지, 가려운 시간이 긴지 짧은지, 피부의 병변(病變·병이 원인이 돼 생기는 생체의 변화)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가려운 부위에 따라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자.

온몸 건조한 피부가 가장 흔한 원인이다. 체질적으로 건성 피부인 사람이나 건조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노인은 가려움증을 많이 느낀다. 노인이 되면 피부의 유분 생성과 수분 유지 능력이 감소돼 피부가 건성이 된다. 보습제 등을 사용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외에는 부족한 방법이 없다. 온몸이 가려우면서 가려움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엔 의사 문진, 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혈당 검사, 소변 검사, 흉부엑스선 검사 등을 받아 몸속에 다른 병이 숨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병, 신장병 등의 내과 질환들이 가려움증을 일으킨다. 대부분 병이 깊어진 다음 합병증으로 가려움증이 나타나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 담도 폐쇄, 호지킨병은 초기증상 중 하나가 가려움증이다. 한편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도 온몸에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며, 약이나 음식이 몸에 맞지 않은 경우에도 온몸 가려움증이 생긴다. 약이나 음식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대부분 두드러기가 생기므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머리와 얼굴 눈썹이나 눈썹 사이, 이마, 코 등이 울긋불긋해지면서 가렵거나 머리에 비듬이 많



으면서 가려운 경우엔 지루성 피부염을 의심할 수 있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선 활동이 증가돼 발생하는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체질적 영향이 크므로 완치는 어렵지만 비듬 샴푸나 연고를 사용하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증상이 호전된다.

목·겨드랑이 무더운 여름철 야외 활동 뒤 목이나 겨드랑이 등이 콧속 찌르는 것처럼 가려운 경우엔 땀에 의한 피부자극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땀띠는 물론이고 땀을 흘렸던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려움증이 생긴다. 여름철 장갑을 끼고 농사일 등을 한 뒤 장갑 낀 손만 콧속 찌르듯 가려운 것도 땀 때문이다. 땀이 나는 즉시 닦고, 땀 흡수를 위해 면 내의를 입는 게 좋다.

손바닥 흔히 주부습진이라 부르는 접촉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많다. 가사일을 하면서 물에 손을 많이 담그고, 양파나 마늘 같은 자극성 음식이나 세제를 많이 만지면 피부가 빨갛게 변하면서 껍질이 벗겨지거나 갈라지거나 두꺼워지는 증상이다. 고무 장갑 안에 면장갑을 끼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 물질과 접촉을 줄여야 한다.

항문 스트레스, 긴장, 불안, 공포 등 심리적 원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눈꺼풀 주변, 콧구멍, 귓구멍 등 점막 부위는 인체에서 가려움증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부위로 심리상태와 관계가 있다. 그 밖에 치질 등 대장항문질환이나 매운 음식 등도 항문 가려움증의 원인이다. 어린이의 항문 가려움증은 요충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외음부·음낭 칸디다증 같은 곰팡이 감염이나 그 밖의 세균성 질염, 생리대나 피임장치 등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등이 여성의 외음부 가려움증을 일으킨다. 남성의 음낭 가려움증은 심리적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지루성 피부염이 두꺼워진 태선도 중요한 원인이다.

살(사타구니) 곰팡이(완선) 감염과 접촉성 피부염을 구분해야 한다. 완선은 살을 중심으로 원형의 병변이 생기고, 가장자리가 좁쌀 같이 돌아나서 만지면 만져진다. 발에 무좀이 있다면 완선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부가 겹치고 마찰돼 생기는 단순 피부염인 경우엔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피부가 약간 검게 변색돼 있는 경우가 많다. 완선은 무좀약을, 피부염은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야 한다.

다리 건성 피부염이나 다리의 탈에 의한 자극이 원인이다. 피부 지방성분이 부족해 생기는 건성 피부염은 특히 다리에 많다. 씻은 뒤 크림 등으로 보습해 주고 심하게 가려운 경우엔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 증상이 좋아진다.

발 1차적으로 무좀을 의심해야 한다.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면 갈라지거나 발바닥 껍질이 벗겨지거나 수포가 생기면서 가려운 경우엔 100% 무좀이다. 무좀이 없는데도 발바닥이 몹시 가려워 두드러지거나 피가 나도록 긁어야 시원한 경우엔 피부 건조증을 의심할 수 있다. 보습제를 바르면 증상이 좋아진다.



바뀌바뀌, 모든 걸 다 바뀌, 매니페스토

오윤현 / 시사저널 기자

혹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느 당의)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구청장, 혹은 군수의 이름은? 십중팔구 이름은커녕 얼굴조차 기억 못할 것이다(만약 얼굴과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은 '일등 시민'이다). 사정이 이러니, 그들이 선거에 출마하며 내세운 공약이야 더 말할 무엇 하랴.

최근 우리 사회에 알음알음 번지고 있는 '매니페스토'는 이같은 유권자들의 '건망증'과 '무관심'을 치료할 유익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총선에 뛰어들 정당에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정책 개요를 공식 문서로 만들어, 선거 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이다. 어원은 라틴어 manus(손)와 fendere(치다, 빠르게 움직이다)의 합성어. '손을 들어 책임을 진다'는 선언·선서의 의미를 띠고 있다.

처음 시작은 1834년, 의회 정치의 원산지 영국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보수당 당수 로버트 필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며,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정당들은 충실한 공약을 만들어 공개했고, 그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지금도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은 2.5파운드(한화 약 4천6백 원)짜리 정책 공약집을 파는 식으로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천하고 있는 매니페스토의 의의를 굳이 따진다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기존 선거 공약과 달리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담고 있다. 해당 정당이 정국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을 때 시행할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업 목표, 그리고 방향과 일정 등이 명확히 기입

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국정 운영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세 번째는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정책 경연장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박홍순 열린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언제 매니페스토가 등장했고, 그 성과는 얼마나 거두었을까. 첫선을 보인 게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였으니까, 역사는 일천하다. 그 방법과 내용도 영국과 조금 달랐다. 영

국은 정당이나 출마자가 '선언·서약'의 의미로 매니페스토를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시민사회단체가 그 필요성을 제기해 운용되었다. 내용도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선언·서약적 의미보다, 그 공약의 타당성·달성 가능성·구체성·달성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www.manifesto.or.kr)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치 매니페스토'는 대국민 계약이라 할 수 있는 '자치 매니페스토', '정당 매니페스토', '정권 매니페스토'로 세분화된다. 자치 매니페스토란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문서화해 유권자와 계약하고, 당선 후에는 주기적으로 이행 사항을 평가받는 것이다.

정당 매니페스토, 정권 매니페스토도 마찬가지이다.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강령, 미래 비전 같은 것을 문서화해 국민과 약속하고(정당 매니페스토),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대국민 계약서를 제시하는 것이다(정권 매니페스토). 따라서 한국의 매니페스토는 '유권자가 출마자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매니페스토 집(集)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한 뒤,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대국민 참여운동'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매니페스토가 정치 아닌 다른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생활 매니페스토 운동이 그것이다. 부부나 연인이 Re프로포즈를 하거나, 노사가 서로 책임 있는 약속을 정하고 이행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Re프로포즈란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된 부부가 함께 살아온 삶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미래의 약속을 담은 문서를 교환하고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생활 매니페스토 운동은 Credibility(신용) Responsibility(책임) Transparency(투명) Substantiality(지속)의 머리글자를 따서 C.R.T.S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3월 4일에는 생활 매니페스토 운동의 일환으로 '이색 결혼식'이 열리기도 했다. 엄상현·김미순 씨의 결혼식이 그것. 이들의 결혼식은 여러모로 남달랐다. 혼인 서약을 낭독한 신랑신부가 각각 작성해 온 다섯 개씩의 공약을 발표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것이다. 신랑신부의 공약은 비교적 간단했다. 신랑은 청소와 설거지 등 집안일을 책임지고, 절대 비자금을 만들지 않고, 매달 한 번씩 공연·전시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겠다고 약속했다.

신부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①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겠다 ②재테크에 최선을 다하겠다 ③집을 아름답게 꾸며 일찍 귀가하도록 만들겠다 ④남편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건강 지식을 열심히 공부하겠다 ⑤외모 관리에도 신경 써서 남편이 탄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 주례를 맡은 강지원 변호사는 이들의 약속을 지켜보며 "매니페스토 결혼은 작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약속으로 이뤄진다"라고 말했다.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대선·총선·지방선거는 물론, 정부의 감사 정책·대학 총장 선거·농협 조합장 선거·교육감 선거 등까지 확산되고 있다. 또 그와 관련한 각종 세미나도 열리고 있으며, 관련 출판물의 발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6개 광역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패는 활용도가 아니라, 유권자의 관심에 달렸다. 지금처럼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그 운동 역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나부터라도 생활 매니페스토를 만들어 보고, 그것을 차근차근 실천해보면 어떨까?



정부, 전력산업 해외진출 본격화

올해부터 전력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5개사업에 총 60억원이 지원된다. 산업자원부는 3월 5일 전력산업 수출산업화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수출유망시장 조사 및 프로젝트 발굴사업, 해외수출 타당성 조사사업, 우수 전력기술의 해외시범사업, 전력분야 국제인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해외 전력시장 D/B구축 정보화사업 등 5개사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한전, PLC사업 본격 추진

한전은 올 상반기 중에 전력선통신을 이용한 원격검침 2차 시범사업과 고압장거리 통신장치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월 22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10월 중장기계획을 마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PLC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잡지는 특히 사업화 도와준다

잡지고 있는 미활용 특허를 전문가가 맡아 이전, 사업화를 도와주는 특허신탁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술거래소, 특허정보원 등을 신탁기관으로 지정, 특허정보를 일원화하고 수요기업에 대한 중개 마케팅은 민간기관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 발족

과학기술부는 3월 15일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을 발족하고 수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기술수출지원단'은 지난해 마련된 과기부 원자력기술 수출지원팀과 수출기업, 기업협회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특히 해외시장 조사와 마케팅, 수출금융, 수출통제를 지원하는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한다.

정부가 나선 대체에너지 개발 2제

산업자원부는 3월 14일 경기 이천시 모전 영농단지에서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설비가 시험운전을 거쳐 본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내 생산을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월 14일 밝혔다.

남동발전 김해시에 1000kW급 태양광발전소 짓는다

한국남동발전은 3월 21일 경남 김해시청 회의실에서 김해시, 한국코트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첫 사업으로 김해 명동정수장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키로 했다. 남동발전에 따르면 총 사업비 80여억

원이 투자되는 명동정수장 태양광발전소는 설비용량 1000kW급으로 늦어도 올 연말에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추진

제주도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3월 25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 풍력발전단지과 한경면 신창 풍력발전단지를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대상으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려지는 열로 전기 만드는 시대 온다

유기물 분자 하나가 열을 받으면 전기를 생산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유기물을 이용해 곳곳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수거,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유기물은 플라스틱이나 비닐·벤젠 등 주변에 흔한 것으로 손쉽게 합성하고, 그 형태를 변형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에너지재료연구단 장성연 박사가 지난해 말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그 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일궈낸 성과다. 연구 결과는 학술지 사이언스 3월 16일자에 실렸다.

친환경 연료 에탄올 여러 식물서 추출

성균관대는 3월 14일 생명공학부 진용수 교수팀과 미국 스탠퍼드대 등 5개 대학 연구소가 참여한 국제 연구팀이 에탄올 등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사용되는 균주인 '피키아 스티피티스'(Pichia stipitis) 염기 서열을 해독한 내용을 담은 논문을 네이처 바이오 테크놀로지 3월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가 상용화되면 나무 같이 식량이 아닌 식물에서도 에탄올을 추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세계 최소 메모리 소자 개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3월 13일 전자전신학과 최양규 교수팀과 나노종합플랫폼센터가 실리콘 나노선(silicon nanowire)과 차세대 소자인 '소노스(SONOS)' 기술을 결합해 세계에서 가장 작은 8나노미터(nm)급 3차원 차세대 비휘발성 플래시메모리 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8나노미터는 성인 머리카락 두께의 1만2,000분의 1에 해당한다. 이번에 개발된 3차원 메모리 소자는 전자의 이동통로인 실리콘 나노선 위에 산화막-질화막-산화막을 차례로 쌓아 올려 형성된 게이트 절연막과 실리콘

나노선을 게이트가 3차원으로 감싸는 새로운 형태의 비휘발성 메모리 구조다.

전기 만드는 창문 국내 첫 양산

아파트 등 건물의 창문이나 발코니에 태양광 전지판을 부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창호가 나왔다. 이에 따라 많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가구에서는 전기료 절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월 120kW의 전력생산이 가능해 월 400kW 정도(전기요금 월 7만원선)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기존 전력의 3분의 1 정도 절약이 가능하다. 시스템 창호업체인 이견창호는 최근 국내 최초로 차세대 시스템 창호인 태양광 창호 '솔라윈'을 개발, 본격 시판에 나섰다고 3월 6일 밝혔다.

120년 난제 '248면체' 답 찾았다

우주구조에 대한 시험이론으로 적용될 수 있는 248면체의 이론적 구조를 만드는 게 가능해졌다고 라이프사이언스 닷컴 등이 3월 19일 보도했다. E8구조로 불리는 248차원 도형은 가장 복잡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럽의 수학자와 과학자 18명으로 구성된 '아틀라

스 그룹'은 4년 연구 끝에 E8 구조의 해답을 발견했다.

호주서 뇌로 움직이는 게임기 개발

호주의 이모티브시스템사는 헬멧과 비슷하게 생긴 헤드셋과 소프트웨어로 이뤄진 '프로젝트 에폭'의 개발을 끝내고 3월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게임 디벨로퍼스 콘퍼런스'에 선보였다. 조이스틱이나 키보드를 이용하지 않고 뇌와 컴퓨터를 이어주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다. 생각만으로 게임 속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고, 캐릭터의 표정을 바꿀 수 있다.

일본, 캐나다 대체에너지 생산

니혼게이지신문은 일본 석유가스금속공사가 메탄 하이드레이트로부터 메탄가스를 추출하는 시험을 2월 27일 캐나다에서 실시했다고 2월 28일자로 보도했다. 이번 시험은 일본 석유가스금속공사와 캐나다 천연자원부의 공동연구이며 아울러 올 겨울 캐나다에서 수개월에 걸친 시험에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씨클 동정

본사 마라톤동호회 서울국제마라톤대회 참가



본사 마라톤동호회는 지난 3월 18일 도심 평화문을 출발, 청계천 및 뚝섬 서울의 숲을 거쳐 잠실운동장까지 42.195km를 달리는 2007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좋은 기록으로 10명이 완주하였다. 지난해의 쌀쌀한 기온과는 달리 달리기엔 적당한 날씨와 특히 울시즌 세계최고기록(2시간 8분 4초)을 수립한 이봉주 선수와 함께 한 의미있는 자리라서 더욱 감격스러웠고 새롭게 단장한 청계천의 봄을 맘껏 즐기는 기회도 되었다.

본사 산우회 주왕산 다녀와



본사 산우회 회원 43명은 지난 3월 17

일 경북 청송에 위치한 주왕산을 다녀왔다. 회사에서 출발하여 청송으로 가는 길에 계속하여 비와 눈이 내려 산행을 걱정하였으나 다행히 산행 시작부터는 바람이 다소 불고 날씨만 조금 흐릴 뿐 비와 눈이 그쳐 무사히 산행을 마칠 수 있었다. 산행은 매표소를 지나 대전사, 정상, 칼등고개, 능선, 후리매기, 2폭포, 1폭포, 학소대를 지나 원래 출발지점인 대전사로 하산하였으며, 약 4시간이 소요되었다. 산행 후에는 간단한 뒤풀이 후 주산지에 들렀다 귀경하였다. 4월 산행은 넷째주에 실시되며 독도 관광을 포함한 울릉도 성인봉 등반이 예정되어 있다.

인사 동정

상무(수석급)

강용희 · 원자력사업개발처
김형배 · 원자로계측제어처
이배수 · 플랜트사업개발처
강선구 ·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차장(책임급)

이창 · 계약실
정구철, 김주백, 최원경 · 전기기술처
문선창 · 원자로안전처
한윤희 · 정보화추진처
김광표 · 원자력기술처

사우에 경사

결혼

- ▶ 계측제어기술처 최수영 부장 장남 : 3월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
- ▶ 사업관리기술처 임봉환 부장 장남 : 3월 24일 보문동 영암교회
- ▶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이광남 부장 장녀 : 3월 31일 서울 남대문교회

부음

- ▶ 원자력기술처 이주옥 차장 부친 : 3월 3일 쌍문동 한일병원
- ▶ 사업관리기술처 박동환 차장 모친 : 3월 3일 부산 봉생병원
- ▶ 플랜트사업개발처 심현숙 과장 시모 : 3월 9일 서울의료원
- ▶ 기획처 윤혜순 차장 부친 · 전력기술개발연구소 배운호 차장 장인 : 3월 11일 중앙대병원
- ▶ 토목기술처 서정욱 차장 장모 : 3월 12일 인동시 인동성소병원
- ▶ 배관기술처 박계관 차장 장인 : 3월 16일 일원동 삼성의료원
- ▶ 토목기술처 김재원 부장 부친 : 3월 18일 삼성서울병원

참사랑 봉사단

기획관리본부 농어촌결연마을 친선교류행사 참가

직할 및 기획관리본부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3월 2일 농어촌결연마을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1리를 방문하여 그 동안의 결연사업으로 깊어진 우정을 재확인하고, 2007년에도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다짐하는 친선교류행사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봉사단원들과 주민이 하나 되어 대보름맞이 화합의 웃음을 벌였으며, 새마을회관 준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결연마을에 공용 식기류를 지원하였다. 또한 주민들과 한자리에 모여 2007년도 농어촌결연마을 참사랑봉사단 활동계획 및 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실질적이고 짜임새 있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교류확대를 약속했다.

원자로설계개발단 결연마을 방문

원자로설계개발단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3월 22일 결연마을인 장수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올 한해 장수읍 개정리 하평마을 과수농가 봉사활동 지원 내용을 협의하였다. 하평마을은 약 12가구가 3만여평에서 과수농사를 짓고 있다.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성심원 등 방문

전력기술개발연구소 참사랑봉사단은

지난 3월 1일 성심원 및 사마리아원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성심원팀은 정원을 손질했는데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에 잡풀을 뽑아주어야 한여름 정원손질이 수월하다고 한다. 이날에는 이른 봄인데도 햇빛이 강해 땀이 마르질 않았지만, 잘 정돈된 정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길 생각하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진 하루였다. 선한사마리아팀은 100여명의 식구들이 사용하는 강당 청소를 맡았다. 강당이 생기고 테이블이며 의자를 한번도 물청소를 안했으니 깨끗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든 의자를 마당으로 옮겨 본격적인 물청소를 하였다. 2인1조로 의자팀, 물청소팀, 강당팀으로 나누어 나르고, 씻고, 밀고, 닦고 설새없이 청소를 끝내고 고생했으며 주신 고구마 맛탕을 맛보며 맛있는 마무리를 하였다.

동우회 동정

제34차 이사회 개최

동우회는 지난 2월 28일 제34차 이사회를 장기옥 회장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날에는 2006년도 사업실적 결산 및 잉여금처분(안) 승인 의견,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의견, 제17년차 정기총회 개최의견을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다. 이어 자랑스러운 한기

동우인상 수상자 선정 의견을 상정하고, 김관수 (주)코센 사장, 이평석 (주)코센 대표이사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제5호의인인 감사패 증정(안)을 상정, 천광순 인터파워이엔씨(주)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도록 의결하였다.

전기실업 이사회 개최

동우회가 설립, 운영하는 (주)전기실업은 지난 2월 23일 제24차 이사회를 최봉기 대표이사 주제로 이사 전원과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12기(2006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안), 제12기(2006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제12기(2006년) 영업보고서(안), 임원보수한도액(안),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1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 기타 토의사항에서 (주)전기실업 명칭변경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부음

- ▶ 신기조 배우자 : 3월 1일 순천향병원
- ▶ 이원식 장인 : 2월 22일 경북구미병원

Movie

극락도 살인사건
김한민 감독 · 박해일, 박솔미 주연



17명이 사는 작은 섬, 극락도에서 김노인의 칠순 잔치가 벌어진 다음날 아침, 두 명의 송전기사의 사체가 발견된다. 함께 회투관에 있었던 덕수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지만 그의 행방마저 묘연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든다. 섬 주민 전원이 용의자일수도, 피해자일 수도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 난생 처음 살인 사건을 맞닥뜨린 마을 사람들은 보건 소장 제우성을 필두로 회투관 살인사건 범인을 추리하는데 열을 올리지만, 이웃들의 주검만 늘어간다. 한편, 우연한 기회에 이번 살인사건과 관련된 듯한 모종의 쪽지를 발견한 학교 교사 춘배는 쪽지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는데……. 과거 우리나라 섬에서 쉽게 볼 수 있던 사머니즘적 요소와 이제 막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해 무전기가 유일한 통신 수단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긴장감을 더한다.

Exhibition

앤디 워홀 팩토리
-6월 10일 삼성미술관 리움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의 작고 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로 1960년대의 대표적 인 작품들은 물론 뉴욕의 유망한 상업 디자이너로 활약하던 1950년대의 작품들과 드로잉, 사진, 포스터 등 200여점이 전시된다. 1928년 미국의 피츠버그에서 출생한 앤디워홀은 캠벨수프 통조림, 브릴로 상자와 같은 일상적 사물들을 소재로 한 작품과 마릴린 먼로, 케네디 등 유명 인사의 초상 작품으로 널리 알려졌다. 대량생산으로 특징지워지는 현대 소비사회와 TV나 신문 등과 같은 매스미디어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워홀의 작품은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의 이분법적 위계구조를 와해함으로써 예술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www.leeum.org

Performance

귀신의 집으로 오세요
-5월 27일 제일화재 세실극장



승가고시도 안보고 스님행세 하다가 뒷덜미 잡혀 퇴마사의 길로 뛰어들던 사기꾼 퇴마사와, 미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을 다니고 싶었지만 능력부족으로 서울 분교로 만족해야 했던 미모만 갖춘 평론가 지서린, 그리고 그들을 섬외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퇴출직전의 방송국 프로듀서, 이들은 미스터리 '귀신의 집으로 오세요' 라는 TV 프로그램을 위해 망우리의 한 흥가를 찾는다. 그 곳에서 사기꾼 퇴마사는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된다. 흥가에 살고 있는 한 소녀와 엄마, 그리고 인우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인우를 통해 보게 된다. 프로듀서와 평론가는 그 내용을 카메라에 담고 분석하려 하는데……. 이 지나가 연출을 맡고 영화배우 유지태가 원안을 쓰고 인우역으로 나온다.

02-541-4519

향수 어떤 살인자의 이야기

쥘스킨트 / 열린책들

이태윤 / 원자로설계개발처 차장

보통 아시아인은 유럽인에게서 강한 체취를 느끼곤 한다. 백인과 흑인은 털이 많은 탓에 땀을 많이 흘리고 모낭 밑의 아포크린 선이 많아 냄새가 강하다. 이 때문에 그들은 향수를 몸에 잔뜩 뿌리고 다닌다. 어떤 때는 욕지기가 날 정도이다. 우리는 꽃을 좋아한다. 그러나 꽃은 식물의 생식기이며 생식기관이 축축하게 젖어 임신가능한 기회를 알릴 때 우리는 코를 킁킁거린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향수의 성분에는 수돼지의 발정 호르몬도 있다. 우리는 식물의 생식기, 동물의 분비물, 고름을 몸에 바르고 다니기를 좋아한다.

파트릭 쥘스킨트의 <향수>라는 소설에는 무섭고 괴이한 주인공이 나온다. 18세기 프랑스인 그루누이는 무취의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 대신 귀신이 곡할 정도의 후각 능력을 타고 났다. 그는 냄새로서 나무를 구분하고 우유를 마시면 암소가 젖 낼 때의 기분조차 알아챌 수 있다. 하지만 몸에 냄새가 나지 않기에 사람들이 그를 유령처럼 느끼는 걸 알고 약간 시큼한 치즈 냄새를 첨가하여 일상의 냄새를 만들어 몸에 뿌리

고 다닌다. 그는 나중에 최고의 향수제조업자가 되어 꽃에서 향유를 모으듯 사람에게서 정유를 뽑아 내려고 살인조차 서슴없이 저지른다.

스물다섯명의 처녀를 죽이고 체포된 그는 시민들이 광분하는 사형장에 가장 관대하고, 연민을 불러일으키며, 감정에 호소하는 향수를 바르고 나타난다. 그 순간 약마가 천사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향수의 천재가 이 지상에서 찾아내려고 한 가장 완전한 향수는 무엇일까. 다름 아닌 숫처녀의 머리카를 냄새, 겨드랑이 땀내, 질에서 나는 약간 신 냄새, 유방의 유선에서 내는 살과 젖 냄새, 붉은 입술에 담긴 침샘. 이런 오묘한 냄새를 모아다 영원의 순수 결정으로 작은 향수병에 담고자 하였다.

<향수>라는 소설은 냄새의 백과사전이다. 여기에 냄새에 관한 온갖 서술과 비유가 있다. 그리고 <향수>란 어떤 은유로서 예술가와 전문가가 도취하여 빠져드는 기예의 끝없는 욕망을 상징한다. 욕망이란 불로장생의 약처럼 그것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왜



곡시켜 스스로 파멸하는 모순을 낳는다. 무취의 인간은 냄새로서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을 냄새로서 조정하는 힘을 얻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정작 다른 곳에 있었다니.

그러나 '순간의 에원'이라는 향기는 은연중 인류 정신을 사실상 지배해 왔다. 고대 이집트인의 향수에 대한 집착, 로마인의 향수에 대한 열정은 역사서에도 가득 실려 있다. 인류는 향수를 신들에게 바치는 공물이나 신령스러운 힘으로 숭배하여 왔으며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바쳤던 선물 또한 다름 아닌 진짜 유향이었다.

향수 제조업자는 향수를 만들 때 어떤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고 기본 화음처럼 단순한 향기를 배치했다가 작곡하듯이 여기에 자신의 멜로디 라인 향기를 집어넣는다. 음악과 향수는 그렇게 서로 닮아 있다. 기습 떨리는 달콤한 어떤 흔적이 지취도 없이 남아 배회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설어한다. 우리에게 코가 있는 한 영원히.

틀린그림 찾기



두개의 그림중에서 다른 부분 7군데를 찾아 독자엽서에 표시해 보내 주세요.

구성 : 권기수

편집자에게

'2007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의 신입사원들을 보고 있자니 처음 KOPEC에 입사하던 그 시절 나의 모습이 떠올라 삼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기훈 / 원자로계측제어처 차장

'건강 100세 - 가슴통증과 협심증' 을 관심있게 읽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느꼈을 가슴 통증에 대한 소개를 통해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 되어 좋았습니다.

김상은 / 전기기술처 과장

3월호 당첨자 및 정답



- 이승래 / 사업관리기술처 차장
- 이영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 김성숙 /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 백은주 / 재무관리처

독자에게

사보「KOPEC FAMILY」는 KOPEC가족 여러분들(직원, 가족, 협력업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보에 대한 의견이나 신고 싶은 원고가 있거나 새로 사보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Portal mail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Webadm@kopec.co.kr, 이원주 leew.j@kopec.co.kr 031-289-3194, 한수정 flonej@kopec.co.kr 031-289-3023)또는 독자엽서를 통해 보내주시시오. 퀴즈 한마당에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엽서는 매일 말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레오의 망원경



1607년경 네덜란드의 안경 제작자 한스 리페르세이는 판지로 만든 관속에 두 개의 렌즈를 집어넣어서 망원경을 발명했다. 이 장치는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역의 시골 장터로 퍼져나갔다. 갈릴레오는 1609년에 이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그는 사람이나 지구상의 다른 물건들을 훑어보는 대신에 이 관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는 먼저 이 것으로 달을 관찰했고, 달이 분화구와 협곡과 산악으로 덮여 있음을 발견했다.”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 중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과연일까?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망원경을 갈릴레오는 우주를 보는 도구로 사용한다. 곰곰이 생각하곤 한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답변은 항상 공허하게 돌아온다. 어쩌면 이러한 질문조차 품을 시간이 없다고 문득 문득 우울해진다. 하늘의 별을 그냥 맨눈으로 바라본 적이 언제였지? 갈릴레오처럼 과학적인 업적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그 빛나는 별빛을 보면서 내 마음에 잃어버린 별 하나를 찾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고자 한 생각을 한 것은, 항상 맨눈으로 우주를 보고자 하는 버릇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때 우주의 절대적인 존재, 즉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그에게 그 망원경을 문득 던져주고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래, 네 노력이 가상하다. 이걸로 한번 보렴.’

이미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망원경이 아닐까?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망원경을 손에 넣은 것이다. 진정으로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듯이 할 일이다.

문득 하늘을 보니 구름이 참 좋다.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아마도 별이 찬란하리라.

원재훈 / 시인

